

아프리카: 희망 없는 대륙에서 경제의 맹호로 (Africa: From the Hopeless Continent to Lion Economies, by Mats Tunehag)

2011년 12월 16일 멧츠 튜헤그

10년전 “더 에코노미스트” 잡지에선 아프리카를 “가망없는 대륙”이라고 표현 하였다. 하지만 2011년 최근, 같은 잡지사에서 아프리카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그 기사의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아프리카의 경제는 다른 어떤 대륙보다 빠른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올해 에티오피아는 단 한 방울의 석유 수출 없이 7.5%의 성장을 기록 할 것이다. 가난의 속칭 이던 에티오피아가 지금은 세계 10대 축산 국가로 발돋움 한 것이다.... 10년전 세계의 가장 빈곤한 국가 10개중 6개가 아프리카에 있었다. 지난 8년간 아프리카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 보다 빠르게 성장한 것이다.

지금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산층을 가지고 있다; 바로 오늘 6천만여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중산층에 속해 있고, 2015년도에는 그 숫자가 억만 명에 도달 할 것이다. 이 숫자는 가난에서 기적적으로 구제된 사람들을 나타낸다.

월드 뱅크는 “30년전의 중국과 20년전의 인도와 같이, 지금 아프리카는 경제 성장 비행의 이륙점에 와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국제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가 “데드 에이드”에 저술 했듯이, 아프리카를 가난에서 구제한 것이 국제 원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원인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하자면, “원조가 아닌, 무역”이다.

또 한가지의 요인은 과학 기술의, 특히 휴대전화의, 보급과 확산이다. 지금 아프리카는 6억만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있다, 이 수치는 유럽이나 아메리카를 추월하는 숫자이다. 2009년의 한 연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100명의 인구에 10개의 휴대전화를 더하는 것이 일인당 국민 소득을 0.8%정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휴대폰들은 농산물이나 어패류의 시장을 활달하게 하고 은행 업무를 수월하게 해준다.

무역과 투자의 인상 또한 아프리카 경제 성장의 원인이 되었다. 2010년 아프리카에 부어진 해외투자는 550억을 넘었다- 이 것은 10년전 외국투자의 5배에 해당하고, 아프리카가 원조로 받는 금액을 훌쩍 넘긴다. 활발한 무역 시장을 막았던 장애물들이 줄어들었고 아프리카 대륙 안의 교역과 산업의 민영화 또한 경제 성장 붐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안정이 이 거대한 대륙의 경제 개발을 도왔다. 아프리카는 지난 십 수년의 탈 식민주의 시대에 여러 강국들의 덩치 싸움에 피를 흘렸다. 그 결과로 아프리카는 정치적으로 불안정 했고, 몇몇 극 소수만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정치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은 30여개의 정부를 투표를 통해

바꾸는 역사를 맛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아랍 국가들이 이룩한 민주적 변화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지난해, 46개국 중 36개의 아프리카 정부는 비즈니스가 더 쉽게 이뤄지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아프리카는 아직 많은 문제점과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중국”이나 “새로운 싱가포르”이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우리는 아프리카가 이룩한 많은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에 기뻐하고 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더 에코노미스트” 잡지의 특보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끝난다, “독재, 부패, 그리고 불화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암흑 속에 있는 지금, 아프리카의 놀라운 경제 성장은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있을 변화와 성장의 희망을 상기시켜 준다.”

www.MatsTunchag.com